

‘봄의 전령’ 광양매화축제...열흘간의 대장정 ‘팡파르’

17일까지...최초 입장료 도입 ‘지속가능성’ 확보 ‘매·난·국·죽’ 사군자 테마 4개 지자체 협업 선포

‘제2회 광양매화축제’가 전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성대한 개막 팡파르를 울렸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제2회 광양매화축제가 매화문화관 앞 주무대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개막식에는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을 비롯해 서동용 국회의원, 서영배 광양시장, 김태군 전라남도 부의장 등 내빈과 200여명의 관광객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이상의 함평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김재광 신안군 부군수 등 사군자 테마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축제는 광양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화려한 막이 올랐다. 이후 정인화 시장의 환영사와 국회의원의, 광양시장, 도의회 부의장 등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비전과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광양매화축제, 신안새우란 축제, 함평국향대전, 담양대나무축제 등 사군자 테마 축제 개최 4개 지자체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사군자 테마 축제 협업 선포식’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사군자 테마 축제 협업 선포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전종구 서예가의 거필 퍼포먼스와 4개 지자체장의 낙관 세리미로 퍼날래를 장식했다. 한편, 주무대 옆 특설무대에서는 기네스북 기록 보유 조승환 국제환경운동가가 ‘빙하의 눈물’ 퍼포먼스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광양매화축제가 지향하는 친환경축제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은 “올해는 개최 이래 최초로 입장료를 도입하



광양매화축제가 지난 8일 개막해 성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광양매화축제 현장 매화마을 전경. <광양시 제공>

고 차 없는 거리를 시도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준비했다”며 “아름답고 즐거운 광양매화축제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시장은 “올해 매화축제가 많은 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시는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특별한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감동을 주는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까지 열흘간의 대장정에 오른 제2회 광양매화축제는 매화랑 1박2일, 매실 하이볼 체험, 옷소매 매화골동, 섬진강 뱃길 체험, 섬진강 맨발 걷기, 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대회, 광양맛보기 등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킬러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광양=양홍렬 기자



고흥 유자가 프리미엄 건강음료 원료로 사랑받아 해외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고흥군의 한 유자 밭에서 유자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고흥군 제공>

고흥 유자, 세계인 건강음료로 ‘인기몰이’

공영민 고흥군수, 수출 세일즈맨으로 맹활약
고흥군의 지역 특산품인 유자가 프리미엄 건강 음료 원료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 유자가 고품질 생산·가공 기술로 품질이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건강 음료, 맥주 등 원료로 활용돼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수출 개척단을 꾸려 중국·미국 등지에 유자 가공품 4천534만 달러를 수출해, 지난해에는 전남도 군 단위에서 최초로 농수산

물 수출액 1억300만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12일에는 정청근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국무회의장에서 부처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고흥산 유자 음료를 소개했고, 올해 설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 원로·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로 고흥산 유자청이 포함돼 고흥 유자의 품격과 위상을 입증하기도 했다. 고흥 유자차, 에이드 등 유자 음료는 상큼하고 건강한 맛이 일품이라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 잡아 도시 유명 카페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매년 11월 초에는 고흥 유자를 테마로 한 유자 축제가 열리는데 이날은 유자밭에서 데이트를 즐기거나 유자 생과를 산지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자는 차, 엑기스, 음료, 폴라젠, 잼, 알차 등 다양하게 가공돼 시판되고 있다”며 “최근 서울 타주에서 고흥 유자를 원료로 막걸리를 생산하고, 글로벌 맥주회사 체코 필스너에서 맥주 원료로 수입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장성, 논벼 재배 농가 왕우렁이 공급
장성군은 10일 “이달 22일까지 논벼 재배농가 대상 왕우렁이를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논벼 재배농가에 왕우렁이를 지원해 경영 안정과 환경 보호를 도모한다. 친환경 벼는 왕우렁이 구입 비용 전부를 지원하며, 일반 벼는 90%까지 받을 수 있다. 논에 왕우렁이를 풀어 놓으면 바다에 지러난 잡초들을 먹어 없앤다. 제조작업에 들어갈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을 해치는 일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작업을 마친 뒤에는 왕우렁이를 모두 수거해야 한다. 논에 우렁이가 남아 있으면 어린 모를 갉아먹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수확기 이후 동계작물을 재배하거나 논 깊이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왕우렁이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갖춰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입팀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순천시 풍덕동 ‘탄소중립 쓰레기 ZERO’ 운동 확산

오픈 채팅방 ‘풍덕클리너’서 쓰레기 감량 실천 공유
순천시 풍덕동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해 오픈 채팅방 ‘풍덕클리너’를 운영한다. 10일 순천시 풍덕동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한 풍덕클리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의 관심 제고와 생활 폐기물 감량 실천을 위해 주민의 견을 수렴하고 있다. 활동 내용은 대자보 실천, 쓰레기 감량 배출, 다회용품 사용 등 서로 실천

모습을 게시·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돼 매일 활동 모습과 쓰레기 관련 홍보물 게시 건수를 합산해 고득점자를 선정·시상한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 30여건의 게시물이 업로드 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었다. 이달 첫 우수 활동자(사진)로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대자보, 재활용 실천 모습을 게시하며 온 가족이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 동참한 주민이 VIP로 선정됐다. /순천=정기기자

담양시장 버스노선 경유 현장 점검

담양군이 “최근 4월 말 개장 예정인 담양시장의 활성화와 시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장 주변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점검을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 정철원 의원, 심재경 미래성장국장, 최미정 경제교통과장, 김중화 공간재생과장, 강성령 담양읍장, 공무원·운수업체가 참석, 직접 버스에 탑승해 예상 경로를 확인하고, 정류장에서 시장까지 걸으며 점검을 진행했다. (사진) 점검을 통해 주정차 시스템 및 폐쇄회로 CCTV 도입, 불법주정차 단속 차



최소화를 위해 버스는 장날(2·7일)만 운행하고 시간대별, 버스의 차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병노 군수는 “운수업체와 충분한 협의와 운행 여건 마련 이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담양시장의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군, 1회추경 5천890억 확정

본예산비 953억 ↑...정남진 스포츠타운 조성 등
장흥군이 최근 장흥군의회 의결을 거쳐 본예산 대비 953억100만원이 늘어난 5천890억3천8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

면 ▲농림해양수산 345억원 ▲환경 15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억원 ▲국토·지역개발 101억원 ▲문화·관광 92억원 ▲사회복지 분야 49억원 등이다. 세부 사업 별로 살펴보면 ▲편백숲 우드랜드 야간경관 개선 50억원 ▲용산 인암 마을수도화 확대사업 94억원 ▲산림치유형 위케이션 20억원 ▲정남진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27억원 등이 증액 또는 신규 배정됐다. /장흥=노홍렬 기자

“구례 5일시장에 주말 장보러 오세요”

구례군은 10일 “지난 9일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주말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말장터는 매주 토요일 5일 시장 내에서 청년 점포가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제철 산나물 등 농·특산물 판매 장터가 운영된다. 군은 특화된 품목과 차별화된 공간으로 5일 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쇼핑·휴식을 즐기며 시골의 옛 정취와 인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은 구례 5일 시장이 군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명품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여수시, 소나무 재선충병 전락방제 ‘총력’

50억 투입...도서지역 포함 13개 권역 900ha
여수시가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긴급 방제비 50억원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도서지역을 포함한 13개 권역 약 900ha에 권역별 우선 순위를 고려한 방제 전략을 수립해 이달 한달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한다.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인 4월 이전, 적기 방제를 위해 책임 방제 구역 설정과 신속한 조사, 설계, 시공의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 피해목 분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주요 방제 방법인 고사목 단독방제, 예방 나무주사 등 드론을 이용한 약제살포, 소규모 모두베기 등 다양한 방제 수단을 동원해 효율을 극대화 한다. (사진)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가동, 드론 등을 활용한 촘촘한 예찰활동을

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단속해 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 도서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 긴급방제비 8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 섬박람회를 대비해 돌산·화양지구를 우선적으로 전량방제하고 금오도와 개도 등은 예방 나무주사·예찰활동 등으로 전략적 방제를 추진한다. /여수=김진선 기자

